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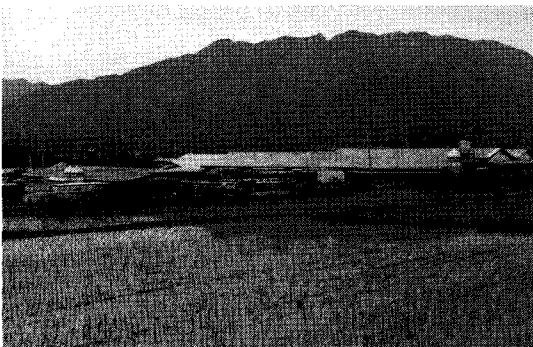
[앞으로 축종별로 성공한 목(농)장을 하나씩 소개하여 성공하게 된 비법을 공유하며, 아울러 회원농가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더할나위없이 기쁘겠습니다.]

- 경기 포천, 정동목장편 -

낙농입문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에서 얼룩이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있는 정동목장의 김희동 사장은 멀리 전남 강진농고 축산과를 졸업하면서 축산의 꿈을 불태우기 시작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군 생활을 오래하게 되었으며(중사예편), '78년도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였으나 역시 축산의 꿈은 여전하였고, 아울러 '91년 1월까지 대전, 고양 및 포천지역에서 목장운영에 필요한 산지식을 배우고 익혀 '91년 2월 11일 11두의 젖소로 꿈에 그리던 낙농의 주인공이 되었다.

정동목장 연혁



정동목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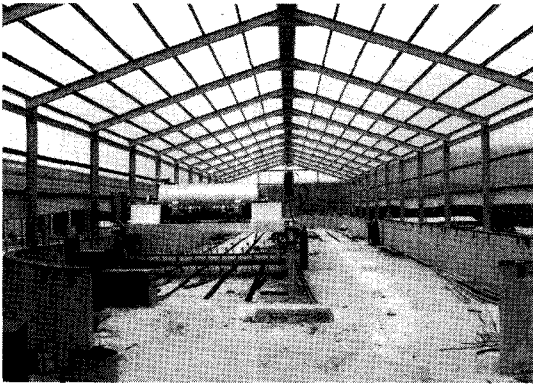
'91년 11두의 착유우를 구입하여 땅한평 없이 농장을 임대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낙농을 시작하게 되었고, '92년 12월 현재의 위치에 1,680평의 땅을 그것도 외상으로 마련하게 되었으며, '93년 3월부터 주택과 축사를 건축하여 '93년 7월 10일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여 드디어 내 땅에서 낙농의 꿈을 펼치게 되었다.

그 이후 '93년에 3,380평, '94년에 1,880평, '95년에 1,820평, '96년에 1,000평을 구입하여 목장의 규모를 키워 나갔다.

축사와 부대시설은 '95년 240평(70두 규모)의 후리스틀 우사와 자동급이기를 설치하여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착유실 또한 16두 동시착유가 가능한 헤링본 착유시설과 930㎡의 액비탱크, 290평의 육성우 및 건유우사(툽밥발효우사)와 250평의 제2후리스틀 우사를 '97년 4월에 증축하고 두 번째의 자동급이기를 설치하면서 130두 규모의 착유우를 사육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금년 6월에 200평의 로터리식 축분발효장(사진참조)을 신축하였고 240평의 육성우사를 추

가로 건축하였으며, 365일 충분한 싸일리지를 급여하기 위한 30평의 싸일로를 만들고 있다.



로터리식 출분발효장

이렇게 하여 1,740평의 축사와 8,300평의 초지, 10,000평의 임차초지를 완벽하게 활용하면서 육성우를 포함한 203두의 젖소(현 착유우 72두)를 사육하는 전기업 목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성실한 노력 끝에 '95년 6월에는 "천호제일사료 우수농장"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천호제일사료회사로부터 성실한 서비스를 지금까지 받고 있으며, 이어 빙그레우유의 시범목장으로 선정되게 되었으며, '97년 11월 20~21일, 한국낙농경영협회의 우수농장으로 선정되어 제 11 회 한·미 낙농세미나(한국낙농경영협회 주최, 한국축육개량협회 주관)에서 "정동목장의 사양관리 기법"을 강의하였고, 11월 27일에는 한국농업전문대학에서 낙농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현장의 목소리"로 특강을 하였으며, 목장을 견학하기 위하여 수많은 낙농가 및 학생들을 맞이하는 바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김사장은 즐거운 표정으로 "이는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분에 넘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겸허히 말한다.

이러한 주변의 관심과 끝없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98년도 전국 산유능력검정성적에서 우군평균 305일 10,392kg으로 낙농선진국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현재는 평균유량 35kg/일 으로서 약 2.5톤의 납유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4톤/일의 우유를 납유하며, 결과적으로는 유가공시설을 갖추어 가까운 주변에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우유를 정동목장의 이름으로 공급하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 한다.

정동목장의 중점관리 10원칙

"목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3가지 기본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혈통(품종)이고, 둘째는 완전한 영양관리이며, 셋째는 합리적인 사양관리입니다.

이 중에서 품종관리 및 개량은 검정사업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영양관리는 사료회사의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목장에 가장 적합한 영양관리를 서비스 받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양관리 만큼은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목숨처럼 느끼며 지켜오고 있는 10가지 사양관리 원칙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라며 차근차근 이어간다.

1. 철저한 개체관리(個體管理)입니다.

성공적인 낙농을 위한 매우 기본적이고 필요한 관리방법이지만 대부분의 목장에서는 알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개체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정동목장은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6



년 만에 전국최초의 포천지역 검정회를 포천에서 발족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체별 완전한 영양공급을 위하여 도식방 지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지금은 자동 급이기로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한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개체별 유 량과 체중, BCS, 분만 및 수정일 등을 고려한 컴 퓨터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천 제일사료 지역부장 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써비스 받고 있다.

또한 최대의 건물 및 조사료 섭취를 위하여 조 사료를 매일매일 믹서하여 급여하고 있다.

이때 수분을 35~38% 정도로 맞추는 것을 잊지 않는다.

2. 분만후의 철저한 사양관리입니다.

송아지를 분만하고 나면 산모를 덜보듯이 해야 합니다. 때문에 갑작스런 배합사료의 증량보다는 하루에 500g씩 조심스럽게 증량하면서 조사료의 섭취를 향상되도록 배려해야 하며, 분변상태 등을 관찰하면서 산유량의 피크때까지 증량급여 프 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열, 케토시스 등 대사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처치하고 분만 후 비타민제를 주사하여 번식장애를 예방하고, 자궁세척을 실시하여 자궁 내막염 등의 예방을 도모하여 다음산차의 번식을 원활하게 하여야 합니다.

3. 건유우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유우는 착유하지 않는 기간이라 고 소홀히 하기 쉽지만, 다음 착유기간의 훌륭한 성적을 위한 준비기간이고 1년간 고생한 후 휴식 을 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욱 정성껏 보살펴

야 합니다.

다음산차의 훌륭한 수행을 위한 BCS관리는 건 유에 들어가기 2~3개월전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건유 10일전에는 유방염 감수성 테스트를 실시하 여 완벽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다음산차 산전유방 염 및 착유중 유방염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농후사료량을 최소화(3~3.5kg)하 고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만 15일전부터 착유사료로 교체하여 분만 당일에는 착유사료를 6kg까지 급여하도록 관 리하며, 분만전에도 비타민제제를 주사하면 번식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4. 발굽관리입니다.

“걷지도 못하면 먹지도 못합니다” 보행이상시는 이미 중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년에 1~2회 정 기적으로 발굽손질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제병이 발견되면 유산동으로 치료하고 붕대로 싸맨 뒤 5 일정도 신발을 신기면 치료가 된다.

5. 유방염 예방 및 치료(착유관리)입니다.

유방염 예방은 건유우관리에서 이미 전술했으 며, 치료역시 감수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나온 결 과를 기지고 억합한 약제를 선택하여 치료하면 됩 니다.

치료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 하며, 유방염 예방을 위해서는 착유관리를 합리적 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이너는 매 6개월마다 또는 수시로 교환하여야 하고, 착유기압과 맥동기도 6개월에 한번정도는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런것들을 소홀히 하게되면 기계적인 유방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과착유는 절대금물이고 착유중에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착유시간을 엄수하는 것이고, 개체별 수진사용과 유방의 완벽한 물기제거를 실시하여 체세포 및 세균수 감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전착유 및 촛검사를 실시하여 잠재성 유방염우를 찾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번식간격 최소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목장의 평균 번식간격 또는 분만간격은 높은 산유량의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분만간격은 14개월(젖소 산유능력검정 보고서)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동목장은 13개월 미만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기적인 발정관찰이며, 정동목장은 현재 감시카메라를 측사에 설치하여 늦은 밤에도 수시로 관찰하여 수정적기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또하나의 방법은 자가수정이다.

또한 분만 후 30일경에 난소검사를 실시하여 한 주기라도 더 늦기전에 난소에 이상이 있는 소는 치료하고 있으며, 분만 후 45일이 경과 된 후 자궁이 완전히 회복된 후 첫 수정을 실시하므로써 소에게 무리를 피하고 있으며, 미네랄 블록 등을 항상 비치하여 광물질 결핍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다.

7. 음수관리입니다.

젖소는 사료의 3~5배의 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며, 관리 또한 세심하게 하여야 한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야만 사료 및 조사료의 섭취 또한 가능하게 때문에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하여주고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유후에 자유롭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급수기를 여러곳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8. 백신접종 및 구충실시입니다.

대가축은 흔히 백신접종 및 구충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다.

정동목장은 아까바네, 유행열, IBR, 바이러스성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만 3주전에 2ml를 백신주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방법이다.

구충은 발바진 등을 섭취시키며, 전 우군을 일시에 실시하지 않고 몇마리씩 일정간격을 두고 섭취시키고 있다.

9. 간기능 보호입니다.

소가 분만한 후 산유량 피크까지는 특히 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단백질은 과잉되기 쉽고 에너지는 부족하게 섭취시키기 때문에 소들의 BCS가 망가지고, 간기능 등이 나빠져서 결과적으로는 번식장애와 간기능 장애 때문에 빨리 도태되게 됩니다.

따라서, 분만 15일 전부터 최소한 분만 후 3개월까지는 고 에너지 사료를 섭취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동목장은 지방간 치료 및 간기능 보호에 매우 효과적인 판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천 제일의 특수사료인 “트리콘”을 전 착유우에게 계속해서 1일 1kg씩 급여하고 있다.

10. 육성우 관리입니다

“일반 목장에서는 ‘젖을 짜지 않는다고 푸대접’하는 식으로 육성우가 많은 목장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량증가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육성우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주저없이 한다.

육성기때 1위를 충분히 발달시키기 위하여는 농후사료보다는 양질의 조사료를 위주로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훌륭하게 관리, 육성된 소들이 착유를 할 때 건물섭취량이 많게 되어 높은 유량을 생산 할 수 있고, 분만 후 식체 및 전위증 등이 최소화되어 목장의 수익을 높여주는 기동소가 된다.

이상의 10가지 원칙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므로 현재의 성적과 수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모두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만 있으면 주위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힘내시고 노력하시어 열성적으로 하시면 반드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김사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전망이 밝음을 읽을 수 있었으며, 또 그 게 되리라 확신하며 발길을 돌린다.

▲김희동사장 주요약력

- 1997년 : 포천검정회장 역임
- 1997년 : 산유능력검정성적 10,196kg으로 전국 1위
- 1997년 : 한국홀스타인 품평회 출품시작
- 1998년 : ‘경기도 낙농전문경영인’으로 선정
- 1998년 : ‘한국농업전문대학교 현장교수’로 위촉
- 1998년 : 산유능력검정성적 10,392kg으로 전국 2위
(1산 및 2산부문 최고유량상 수상, 1산: 11,799kg, 2산: 13,163kg)
- 1998년 : 포천지역 최우수 농가로 선정(55두 검정성적, 10,451kg) 등

(취재 : 임병순)

가축의 인공수정시에는 “정액혈통 및 인공수정증명서”를 반드시 수정사로부터 발급받아 후대축 개량에 적극활용합시다

낙농진흥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됩시다